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NYT: 양호한 노동시장과 경제로 연준은 금리 인하에 신중
- Bloomberg: 연준 고금리 정책으로 기업들 타격
- CNN Business: 미국인들, 개인 재정, 증시, 인플레이 감소에 긍정 평가

[미국 금융]

- Bloomberg: 투자사 Pimco, '부동산 부실 지역은행 문제 더 증가' 경고
- Bloomberg: 채권 트레이더들, 내년도 고금리 예상

[물류]

- AP: 볼티모어 항구, 완전 복구돼 개통
- WSJ: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 시 홍해 후티 공격 중단 또는 감소 될 듯

[에너지]

- JP Morgan: 미중 지정학적 관점 - 핵심 광물
- WSJ: OPEC, 석유 수요 성장 강세 전망 유지
- WSJ: 천연가스 가격, 3월 말 대비 거의 두 배 상승...여름 무더위 전망 탓

[전기차]

- WSJ: 럭셔리 자동차로 번질 수 있는 '전기차 무역 전쟁'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Bloomberg: 5월 미국 중소기업 낙관론 상승...올해 최고 수준
- WSJ: 애플, 첫 AI 제품 'Apple Intelligence' 공개 ... 경쟁사와 유사해
- CNBC: 델타항공, 9월부터 뉴욕-LA 항공편에 프리미엄 이코노미 서비스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NYT: Fed Is in No Rush to Cut Rates as Economy Holds Up

양호한 노동시장과 경제로 연준은 금리 인하에 신중

- 연준 관리들도 현재로서는 인플레이 둔화 시점과 얼마나 오랫동안 고금리를 유지해야 하는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 높은 차입 비용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과 경제가 양호한 상황에 금리 정책 관련해서 연준이 기다리는 입장이다.
- 내일 수요일 끝나는 이틀간의 연준 회의 후에 금리는 동결하고 언제 금리를 인하할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신호를 보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이들은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한 새로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지난 3월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차례 금리 인하였으나 현재는 2차례로 예상되며 이코노미스트 사이에서는 올해 단지 한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적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NYT 기사

Bloomberg: Fed's Higher-for-Longer Stance Hits Firms That Expected Rate Cut 연준 고금리 정책으로 기업들 타격

- 올해 초에 기업들과 소비자들은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연준의 지속적인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 기업들은 자본 투자나 재고, 고용 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 관련 전망 지표인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에 따르면 올해 제조 활동에 대한 자본 투자가 단지 3.9%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초 예상치는 6.7%였다.
- 또한 연방 법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1년간의 기업 파산 신청은 40% 이상 증가했으며 개입 파산도 15% 늘어났다.
- 6월 5일 ISM 자료에 따르면 서비스 분야 응답자의 대부분은 인플레이와 현재 금리 수준이 비즈니스 여건 회복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WSJ 기사

CNN Business: Americans are feeling rosier about their finances, the stock market and inflation's decline 미국인들, 개인 재정, 증시, 인플레이 감소에 긍정 평가

- 뉴욕 연준이 어제 월요일 발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들은 현재와 미래의 개인 재정 상태, 주식 시장, 인플레이 둔화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현재 개인 재정과 내년도 개인 재정에 대해 개선될 것이라고 답했다.
- 개인 재정이 작년 5월보다 나아졌다는 비율은 2년여 동안에 두 번째로 높았다.
- 미 가구의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3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수입 증가에 대한 기대감은 약간 감소한 반면에 내년도 실업률 상승 기대감은 작년 12개월 평균보다 높았다.

CNN Business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Pimco Warns of More US Regional Bank Failures on Property Pain**투자사 Pimco, '부동산 부실 지역은행 문제 더 증가' 경고**

- Pacific Investment Management Co.에 따르면 지역 은행들이 부실한 상업용 부동산 용자에 상당한 수준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은행 문제는 더 늘어날 것이라 것.
- 이 회사의 글로벌 민간 상업용 부동산 팀장인 John Murray는 “쇼핑몰과 사무실 부동산 등 용자를 제공한 대출 은행들에게는 고통의 물결이 시작되었다”고 경고했다.
- 연준의 고금리 정책에 따른 높은 차입 비용으로 자산가치가 타격을 입고 채무 불이행이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매각도 힘든 상황이다. 또한 대형 은행들은 일부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큰 손실을 피하기 위해 우선하여 우량 자산을 먼저 처분하고 있다는 것이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Bond Traders Will Follow New Fed Dots All the Way Into 2025
채권 트레이더들, 내년도 고금리 예상

- 최근 금리 옵션 트레이드를 보면 연준의 금리가 내년도와 2026년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포지션이 커지고 있다.
- 옵션 트레이더들은 스왑 시장보다 더 매파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26년 3월 옵션은 연준 금리가 대략 5.75%를 목표로 예상하고 있는 반면에 스왑은 그 시점에 금리가 4% 수준을 시사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물류]

AP: Baltimore shipping channel fully reopens after bridge collapse**볼티모어 항구, 완전 복구돼 개통**

- 3월 26일 프란시스 스콧 키 다리 붕괴 이후, 볼티모어 항구의 주요 운송 수로가 원래의 깊이와 폭으로 완전히 재가동됐다.
- 당국은 어제 월요일 저녁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실을 발표했다. 이번 재오픈은 파탐스코 강에서 약 5만톤의 강철과 콘크리트를 제거하는 대규모 정화 작업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 볼티모어 항구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와 농기계를 처리하는 항구로, 잔해가 제거되는 몇 주 동안 사실상 폐쇄된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 몇 주 동안 수심이 깊은 수로의 일부를 단계적으로 다시 개방하여 복구할 수 있었다.

AP 기사

WSJ: Container Shippers Stock Prices Fall on Possible Easing of Red Sea Hostilities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 시 홍해 후티 공격 중단 또는 감소 될 듯

- 예멘의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하마스 간의 전쟁에 대한 대응해 작년 12월에 홍해 상업용 선박에 대한 공격을 시작해 컨테이너 선들이 우회 항해함에 따라 운임이 크게 오른 상태다.
- 그러나 최근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정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선박 공격이 완전히 중단되거나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경우 향후 3주나 4주 안에 전세계 선박의 선복량이 4%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일부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현물 가격이 현재 수준에서 50%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면 이는 2024년과 2025년 하반기에 점진적으로 예상했던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WSJ 기사

[에너지]

JP Morgan: Geopolitical Perspectives: Critical minerals

미중 지정학적 관점: 핵심 광물

- 바이든 행정부의 1백80억불 중국산 관세 발표로 핵심 광물 공급망에 대한 중국의 우위가 미중간 전략적인 전쟁에 가장 최근의 전쟁터가 될지 여부에 대한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 반도체와 전기차, 군사 장비에 핵심적인 요소인 광물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려라 함은 중국이 미국의 산업 정책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공급망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 현재 미국은 12개의 핵심 광물을 100% 의존하고 있고, 추가로 29개의 광물을 50% 이상 수입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중국의 희토류, 흑연, 리튬의 주요한 생산국이지만 실질적인 우위는 처리 능력에 있다.
- JP모건에 따르면, 핵심 광물에 대한 지속적인 수출 제한이 중국에 대한 대체재를 가속화 시키며 미국입장에서 낙관적인 3가지 이유가 있다.

- 첫번째 이유는, 석유보다 핵심 광물의 공급 국가들이 다변화 될 수 있는 기회가 커지고 있는데 캐나다, 호주, 유럽, 일본과 같은 우방국을 포함해 채굴과 처리 능력의 국가들이 있다는 점이다.
- 둘째 이유는, 미정부와 기업들이 전략적인 비축을 강화할 경우 단기적으로 핵심 광물의 갑작스런 공급망 혼란을 막을 수 있다.
- 셋째 이유로는 기술적인 혁신과 재활용이 향후 수요를 40%까지 낮출 가능성이 있어 장기적으로 공급에 대한 압력을 줄일 수 있다.
-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우위적인 역할을 계속 해결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산업 정책 사용은 늘어날 것이다.
- 결론적으로 채굴혁신과 재활용을 발전시키는 미국의 산업 정책은 핵심 광물의 공급 증가나 수입 제한 조치보다도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만약 중국이 수출 제한을 늘리거나 완전한 금지를 시행할 경우 전기, 오일, 정제, 국방, 전기차와 같은 핵심 광물에 크게 의존하는 부문에 단기적인 리스크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JP Morgan 보고서

WSJ: OPEC Keeps Robust Oil-Demand Outlook After Output Policy Move OPEC, 석유 수요 성장 강세 전망 유지

- 석유 수출국 기구(OPEC)는 생산량 감축 일부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계획을 발표한 상황에서, 석유 수요 성장에 대한 강세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장이 추가적인 수요 공급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OPEC은 월간 보고서에서 2024년에는 하루에 220만 배럴, 2025년에는 하루에 180만 배럴의 석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이전 예측과 동일하다. 올해 하반기에는 하루 평균 230만 배럴의 석유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 브렌트유는 배럴당 약 81달러, 서부 텍사스 중질유(WTI)는 배럴당 약 77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두 석유 벤치마크는 여름 연료 수요와 OPEC 및 동맹국의 생산량 감축으로 인해 3분기 시장이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월요일에 약 3% 상승했다.

WSJ 기사

WSJ: Steamy Weather Heats Up Natural-Gas Prices 천연가스 가격, 3월 말 대비 거의 두 배 상승...여름 무더위 전망 탓

- 천연 가스 가격이 3월 말 최저치에서 거의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이는 무더운 여름이 올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으로, 7월 인도분 선물은 4% 더

상승했다.

- 에어컨에 대한 추가 수요 외에도 원유 가격 하락으로 인한 생산업체들의 생산 조절로 인해 선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 에너지 정보국에 따르면 지난 겨울 동안 축적된 가스 과잉은 3월에 5년 평균보다 40% 이상 높았던 것이 5월 말에 25%로 감소했다. 이로 인해 국내 저장 시설의 용량 초과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었지만, 올여름 기온이 더 높을 것이라는 전망은 에너지 시장에 새로운 걱정을 안겨주고 있다.
- 북미전력안정성회사(NAERC)는 연례 여름 보고서에서 기온이 예상보다 훨씬 높을 경우 텍사스, 뉴잉글랜드, 남서부, 중서부, 브리티시 컬럼비아 등의 주에서 에너지 부족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WSJ 기사

[전기차]

WSJ: EV Trade War Could Spread to Luxury Cars 럭셔리 자동차로 번질 수 있는 '전기차 무역 전쟁'

- 이번 주 유럽 위원회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9개월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가장 가능성 높은 조치는 25%에서 3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는 유럽산 전기차가 중국산 저가 수입품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지난 주말 프랑스와 독일의 우파 포퓰리스트 정당이 유럽 의회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이러한 정치적 현실이 더욱 중요해졌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새로운 유럽 위원회는 전기차 조사에 대한 정책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다.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의 기후 목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관대하게 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경제적 보호주의에 밀려날 것으로 보인다.
- 당초 투자자들은 포르쉐와 같은 고급 자동차가 중국산 전기차 수입의 위협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작년에는 르노와 같은 대중적인 자동차에 대한 중국산 전기차의 경쟁적 도전을 걱정했던 것. 그러나 파리와 브뤼셀의 정치인들이 이에 대응하면서 우려가 바뀌었고, 주식 시장 성과에도 큰 차이가 발생했다. 포르쉐의 주가는 1년 동안 37% 하락한 반면, 르노의 주가는 55% 상승했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Bloomberg: US Small-Business Optimism Improves to Highest Level This Year

5월 미국 중소기업 낙관론 상승...올해 최고 수준

- 5월 미국 중소기업의 낙관론이 올해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는 기업들이 경제 전망에 대해 비관론이 줄어들었음을 보여준다.
- 독립사업자연맹(NFIB) 신뢰지수는 0.8포인트 상승하여 90.5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 설문 조사에서의 중간 예상치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지만, 장기 평균치인 98보다는 여전히 낮다.
- 낙관론 지수를 구성하는 10개 요소 중 5개가 5월에 증가했으며, 경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중소기업 소유주들의 비율 증가가 주요 요인이었다. 또한, 기업들의 고용 증가 계획도 상승했다.
- 이번 중소기업 낙관론 지수는 올해 들어 두 번째 상승한 것이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높은 가격, 금리, 인건비와 채용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Bloomberg 기사

WSJ: Apple's AI Evolution Is Not Quite a Revolution 애플, 첫 AI 제품 'Apple Intelligence' 공개 ... 경쟁사와 유사해

- 월요일, 애플이 마침내 첫 번째 차세대 인공지능 제품인 Apple Intelligence를 공개했다. Apple Intelligence는 올해 말 예정된 운영 체제 업데이트에 밀접하게 통합될 예정이다.
- 이 소식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지난 1년 동안 애플의 주가는 다른 대형 기술 기업에 비해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지난달 2분기 실적 발표와 월요일의 개발자 컨퍼런스 시작 이전에 14% 급등했다. 이는 10년 만에 가장 큰 상승이다.
- 그러나 이미지 검색, 이메일 및 메시지 작성 도움말 등 월요일에 발표된 새로운 기능 중 상당수는 이미 MS, 알파벳, 구글 등이 다른 AI 도구를 통해 제공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WSJ 기사

CNBC: Delta to launch premium economy service on NYC-LA flights in air travel upsell race 델타항공, 9월부터 뉴욕-LA 항공편에 프리미엄 이코노미 서비스

- 월요일, 델타항공이 9월부터 대륙 간 횡단 항공편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해 프리미엄 이코노미 서비스를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프리미엄 이코노미는 주로 장거리 국제선 항공편에 제공되는 옵션으로, 일등석 또는 비즈니스석과 일반석 사이에 위치하며 가격은 일반석보다 두 배 이상이다.

- 델타항공과 유나이티드항공과 같은 경쟁사들은 고가 항공편을 선호하는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프리미엄 좌석을 늘리고 라운지 업그레이드 및 리워드 카드 판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쟁을 벌이고 있다.

CNBC 기사

"미국인, 고물가 장기화 점쳐...5년 후 전망치 오름세"

"뉴욕 연은 5월 설문조사 결과...1년 후 주가 전망도 긍정적"

미국인들은 장기적으로 높은 물가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이 10일(이하 현지시간) 공개한 설문조사에서 미국인들의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다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 CNBC 방송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뉴욕 연은의 5월 소비자 기대 조사(SCE)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1년 후 기대인플레이션 중간값은 3.2%였다. 4월의 3.3% 상승에서는 약간 하락했지만, 3월은 3.0%보다는 여전히 높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